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 주정



강운태 시장이 지난 1994년 광주 지하철 1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끌치 아플 줄은 몰랐을 것이다. 1호선만 개통시키면 2호선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두고두고 도시발전의 상징이 될 줄로 믿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송언종 시장이 민자유치 방식의 제2순환도로 건설을 결정할 때, 박광태 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격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다.

발목 잡는 교통赤子

하지만, 광주 교통이 확 달라지지는 않았다. 시민들이 지하철에 목매지도 않고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도 예전만 못하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2순환도로를 외면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 시내도로는 항상 교통지옥이다.

그 사이 지하철엔 무임승차만 들끓고, 시내버스는 텅 빈 돈통처럼 채곡에 주행 중이다. (교차로·버스정류장 불법주차·정차는 왜 그렇게 방지하는지) 2순환 도로 민간 투자자는 차량이 다닌다는 계약 조건만 뛰어하고 있다. 투자수익은

보장돼 있으니까.

결국, 시민 혈세가 해결사로 등장한다. 연간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적자 보전에 쓰인다. 이는 광주시 전체 예산 가운데 계속 사업비와 경상·인건비를 뺀 가용예산, 이른바 한 해 투자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도 않

F1신화에 속고 거짓말에 울고

다. 오히려 두고두고 후손들의 주머니까지 손대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가 흐르고, 인권 복지가 넘쳐나는 창조도시를 만들려면 투자예산 전부를 쓸 아도 모자란 데 발목을 단단히 잡힌 모양새다. 창조도시 '을 인'이 아닌 교통 '을 인'이라는 자조(自嘲)가 나을 법하다.

이런 정책 실패는 업적을 남겨야겠다는 단체장의 과시욕과 미래를 보지 못하는 비전문성이 합작한 결과다. 주민들까지 신기루에 취해 함께 들썩이다 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자기파괴'다.

대개는 단체장의 비전 제시→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타당성 조사→계획수립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 자료가 왜곡되고, 미래 추정치가 부풀려지면서 엉뚱한 장밋빛 청사진이 탄생한다. 관련 공무원과 연구기관이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라는 웃사람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결과일 때가 많다. 삽질 시작과 함께 비극은 시작된다.

안타까운 것은 전남도다. 광주시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는데도 따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라원(F1) 얘기다. 기본 자료부터 왜곡하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장밋빛 계획을 세운 것이

여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이 7개월이나 뒤진 끝에 밝혀냈기에 망정이지, 도민들은 '수십만 명 관립'이라는 걸모습에 취해 성공신화를 읊조립 뻔했다.

“트랜스포머 리더십을”

처음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시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이유야 어떻든 1인당 지역총생산(GDP)이 2900만 원에 못 미치는 전남 도민들이 조금씩 모아 300억 연봉을 받는 F1 드라이버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준영 지사가 뒤늦게 "내 터"이라며 사과하긴 했지만, 이런 유의 감추기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긴 한 건지 궁금하다. 전남개발공사는 F1경주장을 인수하고도 한 달 가까이 숨겼던 것도 속일 수 있다는 환상에 취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변할 때도 됐다. 국비 몇 푼에 매달려 거짓 자료로 타당성을 부풀리고, 주민들까지 속여가며 비전을 강매하던 시대는 갔다.

"변신을 시도하면 생존할 확률이 60~70%가 되지만 변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화학의 대명사에서 능업·대체에너지의 통합과학기업으로 변신한 듀폰 전 회장 찰스 홀리데이의 통찰이다.

광주·전남 차지단체장들에게 트랜스포머 리더십(Transformer leadership)을 기대한다.

〈여론매체부장〉jnews@kwangju.co.kr

시 설

물가 상승 '점입가경' 추석 대란 걱정된다

호우로 채소류 등 각종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추석마자 얼마 남지 않아 '물가 대란'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기름값은 1 달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올라 옆친 데 덧친 격이다. 아래저래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과파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물가불안은 공급 요인뿐 아니라 갈수록 수요 압박이 커진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가세해 나타나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인플레이션 심리의 확산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과 서비스료 인상도 가급적 뒤로 미뤄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선 확보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물가부터 잡는 게 '친서민'일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수해와 집중

폐교 직면 강진성화대 학생 구제책 세워야

지난 6월 교수 월급으로 13만 원씩을 줘 과문을 일으켰던 강진 성화대학의 재정 파탄은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 때문이었던 것으로 교과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재단 설립자가 '특별경영'을 통해 72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학점·학위장사'를 하는 등 비리가 난마처럼 얹혀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직도 이런 구태의 사학이 어떻게 존재해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설립자가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자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하고, 대학에는 장녀를 총장 직무행으로, 둘째딸을 회계팀장으로 앓혀 족벌 경영을 하면서 사학을 '돈벌이'로 이용해왔다는 점은 교과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지난 200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 회계와 학사관리 등에 위법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방치했던 게 오히려 화를 키운 것이 아닌가.

無 等 鼓 ☺

전국시대 말 제나라 재상인 맹상군의 식객 중 '풍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맹상군은 풍환을 대단치 않게 생각했지만 대접은 풍족하게 해주었다. 식객들을 먹여살릴 비용이 빠듯했던 맹상군은 하루는 풍환을 자신의 영지인 설(薛)땅에 보내 백성들에게 빌려준 돈과 이를 받아오도록 했다. 설 땅에 도착한 풍환은 그나마 돈을 받아오기는커녕 '맹상군의 명령'이라며 백성들의 자용증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돌아와서는 맹상군에게 '돈으로 사기 힘든 은혜와 의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맹상군은 제나라 민왕의 미움을 받아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3천 명의 식객이 떠난 뒤 마지막까지 남은 풍환은 맹상군을 설 땅으로 인도한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맞이한 것은 물론이다. 풍환은 "영리한 토끼는 도망갈 구멍을 3개 뚫는다. 설 땅은 한 개의 끝이다. 나머지 2개도 곧 준비하겠다"고 자신한다. 풍환은 곧바로 위나라 해왕을 찾아가 맹상군을 친거한다. 해왕

은 세 번이나 예물을 보내 맹상군을 불렀지만, 맹상군은 응하지 않는다. 풍환이 응하지 말 것을 은밀히 권했기 때문이다. 해왕이 맹상군을 재상으로 발탁하려한다는 말은 들은 민왕은 아차 싶어 맹상군에게 사과하고 재상에 복직시킨다. 두 번째 굴이 완성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환은 민왕을 찾아가 '설 땅에 제나라의 종묘를 마련하도록' 설득한다. 선대의 묘지가 맹상군의 영지에 있는 한 맹상군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맹상군은 죽을 때까지 화를 입지 않았다. 풍환은 "교토삼굴(狡兔三窟)" 덕분이다. 불안한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고사지만,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광주시의 정기인사가 마무리되어 간다. 강운태 시장이 광주시민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몇 명의 풍환을 준비해 놓았는지 궁금하다.

/총행기장부지장redplane@kwangju.co.kr

온펜칼럼



심상돈

영리병원 도입 두려워만 할 건가

있겠다. 영리병원 찬성 측은 산업적인 면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논쟁의 본질은 의사와 비영리법인(학교법인, 공의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느냐는다. 현재 모든 동네의원은 개인사업자이다. 세법상 동네 마트와 별 차이가 없다. 2009년 현재 전체 병상의 38% 정도를 개인 병원이 갖고 있다. 개인병원의 경우 의사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익도 모두 가져고, 매각 상속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대학병원(학교법인), 삼성의료원(공의법인), 서울아산병원(사회복지법인)도 병원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은 돈을 벌어도 병원 밖으로 가져가거나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비영리법인은 각자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사회환경 및 의료환경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보험

료를 올리거나 의료수가를 통제하면서 보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게 현재 의료정책의 핵심내용이다. 이대로 가면 병의원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외부 자본이 의료업에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의료의 공적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 의사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기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거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를 다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공적인 부분을 해칠 것이라는 지나친 비판이나, 의료산업이 한 순간에 발전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개설권까지 독점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지나친 의사 보호이며 규제이다.

사회환경 및 의료환경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보험

은행회원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종원

담배 피우는 청소년 보면 타이를시다

힘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신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담배의 독성으로 인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니코틴 중독이 중증으로 발전,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여성청소년 흡연에 따른 해악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의 흡연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규범의 일탈을 의미하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여타의 일탈행위로 쉽게 이행된다. 흡연 청소년들끼리 또래 집단이 형성되어 음주나 암률을 탐나하게 되어 자제능력을 상실해 각종 비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흡연이 화장실이나 건물 사이의 후미진 곳, 오락실, PC방 등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에도 더욱

모든 학교 내에서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부터 학교 내에서의 금연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일부 학생의 흡연행위를 목도하지 말고 개별적인 멘토링과 지속적인 교육, 엄중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인기연예인들의 흡연 장면을 보면서 흡연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도 흡연 장면 방송을 자제해야 한다.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일부 청소년에 국한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와 저연령화를 볼 때, 단순한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금연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 내에서는 그린캠퍼스를 만들고, 청소년에게는 맑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여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학교법인 죽호학원 사무국장〉

아파트 화재 대비 비상용 사다리 의무 설치해야

장착하면 시공비가 적잖게 들것이다. 일본의 경우 1가구당 30~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112m(약 34평)형 아파트가 2~4억 원대를 웃는다. 현실인계 이 액수에 비해 30~50만 원은 적은 금액이다. 하물며 비상시 자가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다리 아닌가.

현재 우리는 비상용 사다리 대신 로프만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토프를 타고 쉽사리 내려올

수 있을까. 우리의 주거문화는 완전히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51 〈F A X 222-8005 〈F A X 222-0511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600 〈F A X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